

# “세계적인 종돈장이 되겠습니다”

「'88 최우수농장상」 수상한 이시길사장



『최우수농장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종돈업에 몸을 던진 이상 세계적인 종돈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지나가나 정성을 다한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우수한 종돈장도 많은데……, 이들 농장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대한양돈협회로부터 '88년에 김정소에 출품한 종돈장중 최우수종돈장으로 선정돼 「'88 최우수농장

상」을 수상한 태화축산의 이시길사장(50세)은 최우수농장으로 선정되는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태화축산이 「최우수농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6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과 자본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7년전 양돈이를 들고다니며 양돈업을 시작한지 17년, 종돈업을 시작한지 6년만에 정상에 우뚝 선 이

시길사장은 '82년 미국의 아틀란타 종돈쇼를 관람한 후 육종의 중요성과 깊이를 인식, 종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이시길 사장은 『'84년부터 시작된 검정돈 경매를 통해 챔피언돼지를 다량 구입하고 미국과 영국 등지의 육종회사를 직접 방문, 고능력돈만을 선별 수입하여 기초돈군을 구성한 후, 농장 특유의 육종방법에 따라 종돈개량을 해 왔다』며 그동안의 종돈개량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120두의 대요크셔와 랜드레이스로 핵돈군을 구성, 계통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태화축산은 3년 이내에 trade mark가 붙은 특징있는 「태화종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

이시길사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최우수농장에 만족하지 않고 수년내에 미국 현지에 종돈장을 설립하여 태화축산을 세계적인 돼지전문육종회사로 만들어 세계로 종돈을 수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같은 계획은 미국 현지인과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중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종돈을 수입하여 확대재생산한 후 다시 수입함으로써 유전자를 낭비하는 잘못은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이시길사장은 『양돈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돈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기술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인 김정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대담 : 김동성〉